
2019년 공무국외출장 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2019.10.24.~10.31.)



오 산 시 의 회

목 차

I. 출장개요	2
II. 출장국 현황	4
III. 출장일정	5
IV. 주요 출장내용	6
①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6
② 싱가포르 국가공원관리국(NParks)	10
③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13
④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16
V. 출장결과	35
① 총 평	35

2019년 의원 국외출장 보고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국외도시의 대중교통, 경제시설 등에 대한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시 발전 도모.
- 국외도시의 선진행정·우수시책·수범사례를 비교 연수하여 의정 역량강화 및 선진의정 구현.

□ 출장요약

- 도시계획의 독보적 체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 및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개발 과정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 정책의 기틀을 마련.
-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출장기간 : 2019. 10. 24.(목) ~ 10. 31.(목) / 6박 8일

□ 출 장 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출장인원 : 의원 5명

□ 출장분야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	· 연수 총괄 · 공유자전거 정책 연구
2		의원	김명철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계획 정책 연구
3		의원	이상복	· 도시공원관리 및 사업 정책 연구
4		의원	성길용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계획 정책 연구
5		의원	이성혁	· 도시계획 연계 관광형 사업 정책 연구

□ 공식방문

일 자	기관·단체명	소재지
2019. 10. 25.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말레이시아
2019. 10. 29.	싱가포르 국가공원관리국	싱가포르
2019. 10. 30.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싱가포르

□ 현장방문

일 자	기관·단체명	소재지
2019. 10. 25.	사이버자야	말레이시아
2019. 10. 27.	Road Safety Community Park	싱가포르
2019. 10. 28.	도심재개발시티갤러리 주릉 새 공원	싱가포르
2019. 10. 29.	보타닉 가든	싱가포르
2019. 10. 30.	싱가포르 Shared Road	싱가포르

II 출장국 현황

■ 말레이시아

- 인구 : 3,194만 9,777명
- 면적 : 3,303만 4,500ha
- 수도 : 쿠알라룸푸르
- 종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 기후 : 열대우림형
- GDP : 3,543억 4,842만 2,831.2달러 세계36위

■ 싱가포르

- 인구 : 580만 4,337명
- 면적 : 7만 1,900ha
- 수도 : 싱가포르
- 종교 : 불교, 기독교, 이슬람
- 기후 : 열대기후
- GDP : 3,641억 5,665만 7,769.9달러 세계34위

Ⅲ

출장일정

일 자	방문지역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0.24.(목) <1일차>	인 천 쿠알라룸푸르	16:35 21:55	-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 4시간 20분) - 쿠알라룸푸르공항 도착(시차 1시간)	KE671
10.25.(금) <2일차>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쿠알라룸푸르	10:00	기관방문(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버스, 경전철, 해상교통 등 녹지와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세종시의 모델이 된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	
10.26.(토) <3일차>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이동	10:00 18:00	- 현장견학(사이버자야) 전기차, 트램, 공공자전거 등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푸트라자야에 소재한 IT 산업단지 - 싱가포르 이동	MH 605
10.27.(일) <4일차>	싱가포르	10:00 14:00	- 현장견학(Road Safety Community Park) - 현장견학(Sustainable Singapore Gallery)	
10.28.(월) <5일차>	싱가포르	10:00 14:00	기관방문(싱가포르 도로안전 위원회) 취소 - 디파발리(Deepavali) 힌두교 빛의 축제 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경일 휴무 (10.27. 일요일)로 10.28. 월요일이 대체 휴무일로 지정되어 기관방문 취소 - 현장견학(도심재개발견학 시티갤러리) - 현장견학(주릉새공원)	
10.29.(화) <6일차>	싱가포르	10:00	기관방문(싱가포르 국가공원관리국 (NParks)) - 현장견학 (보타닉가든)	
10.30(수) <7일차>	싱가포르	10:00 14:00	기관방문(싱가포르 육상교통청) - 현장견학(싱가포르 주요 Shared Road) -보행자, 자전거, PMD가 공유하는 도로 -싱가포르 공유 자전거 MOBIKE 체험/견학	
10.31(목) <8일차>	싱가포르	01:30 08:50	- 싱가포르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KE 646

①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 명 칭 : PERBADANAN PUTRAJAYA
- 소재지 : Kompleks Perbadanan Putrajaya, 24
- 방문일자 : 2019. 10. 25.(월) 10:00
- 연락처 : +603 8000 8000

□ 푸트라자야(Putra Jaya) 현황

- 푸트라자야는 한국의 세종시와 같은 신행정수도이다. 왕궁과 재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곳에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우아한 쇼핑센터와 다양한 리조트, 골프장 등도 위치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원래 야자수 오일과 고무 생산지로 유명했던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그러한 곳을 완전히 뒤엎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신도시의 색을 입히고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 발전되었다.
- 말레이시아어로 푸트라(Putra)는 ‘왕자’란 의미이며 자야(Jaya)는 ‘성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를 대체할 새로운 행정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1980년부터 대두되었고,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인 툰쿠 압둘 라흐만 푸트라 알하즈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따 ‘푸트라자야’로 지명되었다.
- 1999년 6월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부처 이전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 연방 직할령 지정, 2002년 초고속열차 개통 등 대체수도의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 푸트라자야는 1993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이전을 결정하면서 개발계획이 시작되어, 이듬해 ‘가든시티’ 컨셉으로 전체 도시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배치하고 약 121만평 규모의 대규모 인공호수와 약 60만평의 인공습지를 개발했다. 절제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아래 1996년 착공에 들어간지 14년만인 2010년 완공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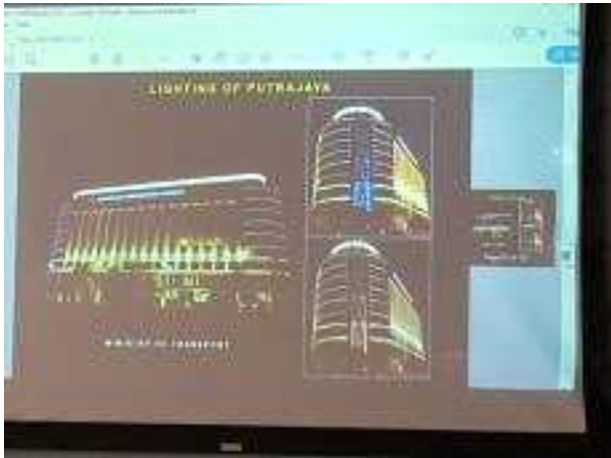
□ 특 징

-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고무의 플랜테이션과 주석의 채굴, 천연가스의 채굴 등 특정한 농작물과 광물의 생산이 번성하였으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총리가 내세웠던 "와와산 2020"(비전 2020, Vision 2020) 정책에 따라, 종래의 농작물과 광산물의 수출, 관광업에 의존하였던 체질로 부터 탈피하여 2020년 까지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이 도시는 ‘정원도시’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도시내 공원호수, 습지 등을 포함한 녹지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 마치 넓은 정원위에 집을 올려놓은 듯 하며, 중심 5개구역은 교통을 제한하고 구역별로 정부구역, 복합개발구역, 공공·문화지역, 상업구역, 스포츠 등으로 조화롭게 도시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실제 도시의 모습을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을 멈추지 않고 넓은 땅덩어리가 최신식 건물들로 차곡차곡 채워져가고 있었다.
- 철저한 계획과 오랜기간에 걸쳐 완벽한 계산아래 건물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이 도시는 우수한 도시 디자인의 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퇴근길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기름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었고,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 푸트라자야는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 또 이 도시의 건축물 하나하나는 특이한 조명으로 부각되고 있었으며, 각자의 건물마다 색다른 형형색의 조명빛이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게 비춰주는가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등을 구분해서 빛의 밝기 조절이라던가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빛의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고 조화롭게 조명 빛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 또 푸트라자야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스포츠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전통 양식과 현대 양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및 쾌적한 인공호수와 함께 푸트라자야가 관광도시로써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시사점

- 푸트라자야 시찰에 앞서 말레이시아 도시관리청 국장의 브리핑을 듣고 국민적 평가, 건설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어려운 문제점 등에 대해 물었다. 관리청 국장의 답변에서 "사업초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됐고 결국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게됐다"고 답했다.
- 이 도시의 건물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한국의 비슷한 아파트나 빌딩들 같지 않고, 각자 독특한 형태의 구조로 구성됐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건축물을 특색있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을 완공 했다고 하였다.
또,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 건축시공사가 20여년동안 독점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규정하에 이 시공사와 협조 관계가 투명하면서도 결속력이 잘 돼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영혼과 정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설과 전통 문화 유산이 공존하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건설됐다며 디자인과 쾌적함은 국제수준이지만 정체성은 순수 말레이시아 특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방문하고 세종시 건설의 벤치마킹으로 삼았으며, 100년 앞을 내다보고 건설한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자랑할만한 도시임에는 틀림없었다.
우리 오산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재정비를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더욱 신중하고, 푸트라자야의 계획된 도시처럼 배울점은 제대로 배워서 더욱 체계적이고 관리계획하에 누구나 살고 싶은 오산시로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며, 친환경적인면에 신중을 기해서 무조건 새로 뜯어 고칠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자연경관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도시관리청 국장님과 함께	▶ 기념품 전달
	
▶ 푸트라자야 회의	▶ 푸트라자야 빛의 축제
	
▶ 푸트라자야 각종 축제	▶ 푸트라자야 건물 조명

② 국가공원 관리국

- 명 칭 : Land Transport Authority
- 방문일자 : 2019. 10. 29.(화) 10:00
- 소 재 지 : 1 Cluny Rd, Singapore Botanic Gardens
- 연 락 처 : +65 1800 471 7300

□ 현 황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안에 국가공원 관리국이 설치돼 있다.
- 싱가포르에서 '정원 속 도시(City in a Garden)'라는 슬로건으로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파크커넥터를 통하여 2030년에는 360km에 달하는 공원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공원 관리국에서는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도보로 250~400m 이내에서 공원녹지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타닉 가든은 도심 속의 국립 식물원으로 아열대 섬의 무수한 공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원으로 52 헥타르의 방대한 부지 위에 원시림과 장미, 관상용 식물 등 전 세계 희귀종을 비롯하여 수천종의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특 징

- 국가공원 관리국은 다양한 생물 보존 및 야생동물의 건강, 복지 및 관리를 위한 선도 기관이다.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비전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미션은 “싱가포르를 공원처럼 조성하자”라는 것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1960년대 초부터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생태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 또한 인구 천명당 공원의 녹지가 0.8헥타르가 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90% 주민들이 근처 400m 반경 또는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한 예로 주룽새 공원처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디자인을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3만 8천여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접수된 의견들은 전문가 그룹에서 다시 의견들을 선별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을 설계하는데만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 시사점

- 우리시 역시 공원 조성에 있어 싱가포르처럼 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 의견의 최대치를 수렴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또한 도심 속에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비율을 높이고 특색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자연 친화적인 푸른 오산의 도시로써 시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담당자 소개



▶ 국가공원 관리국 역할 소개



▶ 질의응답



▶ 방문기념품 전달



▶ 기념촬영



▶ 기념촬영

③ 육상교통청

- 명 칭 : Land Transport Authority
- 방문일자 : 2019. 10. 30.(수) 10:00
- 소재지 : 1 Hampshire Road, Singapore 219428
- 연락처 : +65 62255 582

□ 현 황

- 싱가포르는 1975년 6월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 TDM)의 일환으로 구역통행허가제(Area Licensing Scheme : ALS)를 실시했다. ALS는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장관위원회의 지도 아래 1973년 처음으로 고안됐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 이에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1995년 9월 1일 운수·통신부의 육상교통국(The Land Transport Division), 차량등록국(Registry of Vehicles), 도시철도공사(Mass Rapid Transit), 공공사업국의 도로 수송국(Roads Transportation Division)을 통합하여 설립된 육상교통발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특 징

- 싱가포르의 TDM의 특징은 종합적이라는 데에 있다. 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요금부과를 통한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소유제한도 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보통 승용차 시장가격의 1.5배 수준에 달한다.
- 교통 시스템은 특정도로와 고속도로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행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혼잡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요금은 차량의 종류, 지역, 시간 단위 및 일간 단위에 따라 변동되도록 되어 있으며, 요금수준은 몇개월마다 현행 속도와 목표 속도를 비교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 또 교통시스템은 다양한 히스토리 자료와 교통상황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한 시간 앞의 혼잡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도로이용자에게는 장래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진입시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도로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 된다고 한다.

□ 시사점

- 싱가포르는 현재 개인교통수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통행발생량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로건설이 필요하나 토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 지속적인 사람중심 육상교통시스템 구축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렴한 대중교통 제공,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교통 문제 해결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 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도 점점 세대수 마다 차량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말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가 꽉 막히는가 하면, 출.퇴근시간이면 이동시간이 배로 늘어날 때도 있다.
- 이렇게 차량의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또 시간 소요량의 낭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 교통난 해소는 비단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량문제 해소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싱가포르 처럼 대중교통 이용에 심혈을 기울여 교통난 해소에 더 힘써야 될 것으로 본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담당자와 촬영	▶ 2040년 육상교통청 비전
	
▶ 정책설명	▶ 체험학습
	
▶ 기념품전달	▶ 시스템설명

4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 사이버자야

- 명 칭 : CYBERJAYA
- 방문일자 : 2019. 10. 26.(토)
- 소재지 : Block 3750, Persiaran APEC, Cyber 8, 63000
- 연락처 : +603-8315 6111

□ 현 황

- 사이버자야(Cyber jaya)는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에 위치한 과학단지(science park)이다. 슬랑오르 주의 스팅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50km 남쪽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사이버자야의 공식 개막식은 1997년 5월 당시 수상이었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진행하였다.
-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2009년 푸트라자야와 IT 멀티미디어인 사이버자야 두 도시를 저탄소 도시로 개발하고 국가의 저탄소 도시개발로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기구는 두 도시에서 저탄소 도시, 스마트 커뮤니티 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
-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대학교(MMU, Multimedia University)가 들어서 있으며, 사이버자야(Cyber jaya)에 약 2만명의 학생이 있다. 그 중 20%는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학생이다.

□ 특 징

- 정보산업단지 사이버자야는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이끌 정보통신산업의 허브 구축을 위해 추진된 계획도시이다. 사이버자야는 전자정부 개념의 행정도시 기능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R&D센터, 다국적 기업, 멀티미디어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선진 IT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노력으로 현재는 Nokia, Ericsson, Intel, NTT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해 선진 말레이시아를 향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는 범죄 감소, 빈곤층지원, 인재양성,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CT 기술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성과를 내는 도시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처에 산재한 스마트시티 추진 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즉, 기술발전을 선도할 하나의 템플릿을 구축해 지방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도시의 디지털 변화’를 촉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기술 등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중요한 요소들로 인식되고 있다.

□ 시사점

- 사이버자야는 번영된 산업, 주거, 상업 도시를 목표로 각종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다. 단순 정보산업 단지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보내기 좋은 균형된 도시로써의 도약을 통해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처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고속 통신망, 도로 등의 인프라와 함께 주택, 병원, 국제학교, 여가시설 등을 확충해 사이버자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Smart Home’이라는 모토아래 보다 쾌적한 친환경적인 주거지구 및 편리한 위락시설 개발과 함께 사람, 자연,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며 업무·주거·교육·문화를 종합해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오산시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스마트 관제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방범등으로 시민안심도시 구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 오산시도 사이버자야처럼 초고속 통신망 등을 통해 사람과 기술이 함께 하는 살기 좋고, 안전한 문화 환경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위해 좋은 프로젝트나 기술들을 습득하고 살기좋은 행복한 오산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사이버자야 캠퍼스	▶ 사이버자야 내(內) 한국 국제학교
	
▶ 사이버자야 한국국제학교	▶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 말레이시아 중앙 광장	▶ 말레이시아 광장

■ 서스테인어블 싱가포르 갤러리

○ 명 칭 : SUSTAINABLE SINGAPORE GALLERY

○ 방문일자 : 2019. 10. 27.(일)

□ 현 황

- 싱가포르는 소나기가 많은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말레이시아로 부터 대부분의 물을 수입해 온다고 한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공급, 홍수 조절,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MARINA BARRAGE를 건설했다.
- 서스테인어블 싱가포르 갤러리는 MARINA BARRAGE에 대한 설명과 모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갤러리 이다.
- MARINA BARRAGE는 총 9개의 수문이 있고 마리나 이스트와 마리나 사우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한다. 옥상에는 SOLAR PARK가 있고 잔디가 깔려 있다.

□ 특 징

- 서스테인어블 싱가포르 갤러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양질의 생활 환경을 제공한 싱가포르의 노력에 대해 잘 전시되어 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 물 관리 전략, 폐기물 제로화, 싱가포르를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적하는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터치스크린 전시회, 공원과 수로 상징물, 야간 토양 양동이 · 폐기물과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전시 등을 통해 환경대국 싱가포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 시 사 점

- 서스테이너블 싱가포르 갤러리는 식수의 수월한 공급, 마리나베이의 수위 조절을 통한 홍수 예방,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라는 3가지 목표로도 잘 건설되었으며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건축물로도 인정받았다.
- 1, 2층의 서스테이너블 싱가포르 갤러리에서는 건설 효과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양한 전시품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고, 3층 옥상에는 피크닉을 즐기거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가 깔려 있으며 싱가포르의 다운타운과 분수대가 한꺼번에 보이도록 잘 설계 돼 있어 싱가포르의 멋진 야경을 보기에 좋은 곳이다.
- 또한 싱가포르의 교통법규 준수 시민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도로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를테면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으며 곳곳에 도로 안전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
- 우리 오산시 내삼미동에도 안전체험관이 들어 설 예정이다.
안전불감증이 내재 돼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체험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서스테인어블 갤러리



▶ 우천 시 수문 시연



▶ 정책설명



▶ 9개의 수문의 역할 설명



▶ 수자원확보와 환경보전의 흐름도



▶ 담당자와 촬영

■ 도심재개발 시티갤러리

○ 명 칭 : SINGAPORE CITY GALLERY

○ 방문일자 : 2019. 10. 28.(월)

□ 현 황

-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분리 독립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연방 축출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당시 싱가포르 주 총리인 리관유가 원치 않게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독립하면서 도시국가가 되어버렸고 리관유의 급진적인 정책들이 바로바로 효과를 발휘 하면서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
이런 정책이 먹혀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독재수준의 통제가 필요한데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제가 쉬워져서 오히려 리관유 일가의 지배하에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한다.
- 예로 든다면 싱가포르는 도심재개발 지역이 잘 정비 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도시 재개발국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주관한 설치예술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과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등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마리나베이 지역과 중심 도심지구를 따라서 총 33개의 빛을 이용한 작품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작품에 사용되는 조명은 전부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디자인 되었고 소재 또한 환경 친화적인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 싱가포르의 도심재개발 구역을 관광지로 크게 두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섬 마리나 베이(Marina Bay)를 축으로 하는 동남쪽 지역과 센토사섬(Sentosa Island)이다. 동물원의 경우 싱가포르 북서쪽의 리버사파리/나이트 사파리/싱가포르 동물원이나 서쪽의 주룽 새 공원도 있다. 그 외에 오차드 로드(Orchard Road)나 부기스 스트리트(Bugis Street),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차이나타운 등이 있지만 약간의 이국적인 풍경들을 제외하면 거의가 쇼핑거리라서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다.

□ 특 징

- 싱가포르의 '공업화를 기본으로 한 매우 현대적인 도시문화'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 관광이라는 참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도심 재개발 지역의 건물들을 보면 같거나 비슷한 건물이 없다. 디자인을 시에서 그렇게 정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건물 하나하나를 관광자원으로 봐서 비슷한 설계의 건물도면을 가져오면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때문에 다채로운 건물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싱가포르는 어마어마한 야경과 빌딩의 스카이라인과 빼어난 조경이 잘 혼합된 도시문화와 휴양지로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인공 관광자원의 최고중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적 개발로 분명 도시화는 엄청 잘 되어 있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절반이 녹지일 정도로 자연보전 또한 매우 잘 되어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도심은 건물 반 나무가 반일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보호구역으로 가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습지와 숲, 호수를 만날 수 있다.
- 또, 싱가포르는 확실히 안정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한 밤중 까지도 꽤 안전한 나라여서 혼자 배낭을 짊어지고 늦게 까지 돌아다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거기에다 정치 싸움도 적은 편이고 기후도 안정적이어서 경제와 복지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거리가 굉장히 청결하기로 유명한데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꽂초는 물론 바닥에 껌이나 침을 뱉기만 해도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특히,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대단한 편이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준법정신이 대단하다기 보다는 싱가포르의 법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 시 사 점

- 싱가포르의 주택은 대부분 국영 주택공사 소유로 국민들에게 영구임대 되는 형태이고, 환경보호 및 교통체증 예방 차원에서 개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는 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 뿐만아니라 구입비용 또한 매우 비싸다고 한다. 거기에도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전지역의 도로는 유료로 운영 되다보니 싱가포르의 모든 차량 소유자는 차량에다 단말기나 태그를 달고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버스, 메트로와 같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심지나 어디를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시민들의 교통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
- 이렇듯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로 배울점이 많은 곳이었다. 도심재개발 단지를 보더라도 무조건 새로 뜯어고치거나 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지면서 환경을 살리고 또 그에 맞춰 건축물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면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충함으로써 대기오염 문제라던가 환경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는 곳이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강력한 법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져 이 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멋진 싱가포르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한다.
- 현재 오산시에는 대규모 및 지속적인 수목과 도시와의 조화 관리 방안이 미흡한 상태로 수목들과 도시경관, 건축물, 분리대 등 가로 및 세로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접목하여 특성 있는 도심 속 녹지도시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무조건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싱가포르처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싱가포르 50년 변천사



▶ 싱가포르 가옥구조 모형 확인



▶ 싱가포르 도심 현황 확인



▶ 싱가포르 녹지현황 질의



▶ 싱가포르 재개발 지역 확인



▶ 기념촬영

■ 주룽 새 공원

- 명 칭 : Jurong Bird Park
- 방문일자 : 2019. 10. 28.(월)
- 소재지 : 2 Jurong Hill, Singapore 628925

□ 현 황

- 1971년에 오픈한 주룽새공원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600여 종, 9000마리가 넘는 각양각색의 새들이 모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공원이다. 1968년 당시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거대한 동물원과 방사 새장을 보고 감명을 받아 공업지대였던 주룽 지역을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지금의 새공원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주룽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약 20만m²의 자연공원은 마치 움직이는 박물관과 비슷하다. 공원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조류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최대한 넓고 높은 공간을 마련하고 습성에 맞춘 방사형 우리를 제공하는등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새들이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배려되어 있다.
- 새들의 특성별로 10여 개의 코너가 산책로를 따라 만들어져 있어 골라보는 재미를 더한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세계 최대의 새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폭포사육장 인데 높이 30m의 세계 최대 인공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폭포물이 떨어져 인공 강으로 흐르는 이곳에는 약 1500여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공원을 더욱 재미있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구석구석을 지나는 파노레일을 설치해 두기도 했다. 원하는 곳에서 내려 시간을 보낸 다음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관광객들의 세심한 배려까지 신경을 잘 쓴 거 같다.

□ 특이사항

- 주룽새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펼쳐지는 새들의 쇼(Birds and Buddies)인데 앵무새를 비롯해 특수 훈련을 받은 새들의 재롱을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되는 앵무새 쇼는 귀여운 앵무새들이 노래도 부르고 사람의 웃음소리와 또 말을 따라하는등 신기한 재주를 선보인다. 이렇듯 공원은 새를 관찰하는 기본적인 관람 외에 다양한 쇼와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공원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부리의 역할과 새의 비행의 원리 등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류의 특징과 습성 등을 그림과 함께 쉽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또 특수 조명을 이용해 올빼미, 왜가리, 부엉이 등 야행성 조류를 사육하는 어둠의 세계는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를 더해준다고 한다.

□ 시사점

- 원래 주룽 새공원이 탄생된 배경이 따로 있다. 싱가포르의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거대 새장을 보고 착안하여 공업단지였던 주룽 타운을 자연공원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그는 정말 넓은 마음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 장관 덕에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구경을 하게 되고 또,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한 수입도 늘어나서 국가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었다.
- 우리 오산시에서도 지금 시청 2층 옥상 건물에 버드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 선정이라던가 새들의 서식지로서 충분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싱가폴의 주룽새공원과 비교하자면 자연과 함께 새들이 공존하며 넓은 공원과 자연친화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이 참 인상적 이었는가 하면, 우리 오산시는 주택과 상가가 빼곡한 도심 주변에 버드파크를 설치한다고 하니, 교통체증이라던가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새들은 물론이고 주변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들을 자연과 함께 서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답답한 큰 새장속에 가둬놓고 시민들의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생각 할 게 아니라 장소를 좀 더 넓고 또 새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 해야 될 것으로 본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주룡새 공원 지도



▶ 주룡새 공원 표지판



▶ 새들의 서식지



▶ 새들의 쇼 공연장



▶ 주룡새 공원 내(內) 폭포수



▶ 주룡새 공원 내(內) 물놀이 시설

■ 보타닉 가든

- 명 칭 : Singapore Botanic Gardens
- 방문일자 : 2019. 10. 29.(화)
- 소재지 : 1 Cluny Rd, Singapore 259569

□ 현 황

- 싱가포르에는 사시사철 푸른 녹음과 화려한 색의 꽃들로 가득한 보타닉 가든이 있다. 이곳은 영국령 시대에 만들어진 커다란 정원으로 약 328km²의 부지에 3000종이 넘는 식물과 편의시설이 있다. 크게 백조가 있는 호수, 선가든 등이 있는 탕린지국, 국립난정원, 진저가든이 있는 중앙 지구, 제이콥 발라스 어린이정원, 허브가든 등이 있는 부킷 티마 지역 등으로 나뉜다.
-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으로 도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이자 자연주의자였던 스탬포드 래플스 경이 1822년 식물원과 실험용 정원으로 조성하였고 1859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재개관하고 1874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화훼 산업, 하이브리드종 개발 등 연구와 더불어 정원 조성에 힘쓴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열대식물 전문 기관으로 발전했다.

□ 특 징

- 열대 정원과 꽃이 어우러진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열대림, 양치류, 장미류, 난초 류가 자라고 있는 정원과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셔널 오키드 가든(국립 난초 정원)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난초 정원으로 약 2,000종, 6만 포기에 이르는 난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타닉 가든 무료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내셔널 오키드 가든을 보려면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인사중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귀빈들과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난초를 명명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오랜 전통으로 반다(Vanda) 윌리엄 캐서린(William Catherine), 파라반다(Paravanda) 벨슨 만델라 등 200개가 넘는 VIP 난초들이 있으니 독특한 명예의 전당에 방문하면 세계의 VIP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해 볼 수 있다.

□ 시사점

-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인 이곳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 장소이자 연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

넓은 잔디밭,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 호수, 그 안에 사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독특한 장소들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다. 보타닉 가든 안에는 장미 정원, 난초 정원등 테마별로 정원이 꾸며져 있으며 식물들이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연을 느끼고 그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에 하나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 우리 오산시에는 맑음터공원이 있다. 이 공원에 주말이면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로 북적인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시에도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실내정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맑음터공원이 야외이다보니 여름과 겨울에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실내 정원가든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또다른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	▶ 전시관 운영
	
▶ 유료입장(성인 \$5.00)	▶ 난초류의 정원과 큰 호수 등으로 구성
	
▶ 보타닉가든 내부	▶ 갤러리 운영

■ SHARED ROAD

- 명 칭 : 공유도로
- 방문일자 : 2019. 10. 30.(수)

□ 현 황

- Shared Road는 보행자, 자전거, PMD(personal Mobility Device,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가 공유하는 도로로 보행자의 이동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 200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전거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2012년까지 4천3백만싱불의 예산을 들여 5개 HDB 타운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공유하는 보도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최초로 Tampines Town에 자전거 공유도로를 완성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공유도로 확대, 안전정책 실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동차구입 비용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는 주 SG바이크, 애니 월(그랩사이클 앱 이용), 무브모빌리티 등 3개 업체가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운영 하고 있다고 한다.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이 공유 서비스에 더 친숙해지면서 앞으로 더 성숙한 소비자 마인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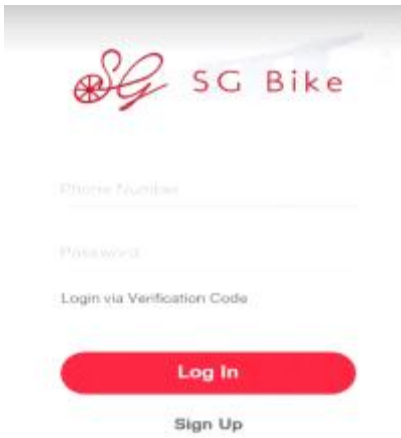
- 싱가포르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전기스쿠터가 활성화 되었다.
전기 스쿠터는 발전한 도심국가에서의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
전기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 전역에서 시간당 이나 분당으로 정기요금을 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또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의 경쟁으로 전기스쿠터 공유 서비스는 일반 자전거 공유 서비스보다 대체적으로 비싸다. 하지만 전기스쿠터는 자전거 보다 훨씬 빠르고 힘이 덜 드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 기능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 및 공해 방지를 위해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이동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비전 ‘Walk, Cycle, Ride SG’에 따라 국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에 700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의 시행 주체가 정부와 기업으로써 거치소 운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오포와 모바이크 같은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추천 거치소를 설치하긴 하나 필수적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앱에서 지도를 보고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용한 뒤에는 어디에든 세워놓고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 시사점

- 한국에서도 자전거 및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진출 및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오산시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유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적 개선, 안전정책, 기반시설설비 및 정비 등과 함께 관련 제도를 먼저 마련하여 공유경제를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이 선행되어야 기본취지에 맞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산시 에서도 점점 자전거도로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전거 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의 수단을 넓혀 나가고 있다.
- 앞으로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 상황도 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공유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는 지금과는 분명 다른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고, 도로 역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자전거 도로와 거치소 확대도 중요하지만 신생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시민들의 발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출장사진

방문사진	
	
▶ APP 스토어 검색 후 회원가입	▶ OR코드 및 BICYCLE No, 입력 후 사용
	
▶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유 하는 도로	▶ 공유자전거 사용법 설명
	
▶ 자전거 시승	▶ 자전거 사용 후 정해진 구역에서 수거

1 총 평

- 해외출장을 통해 의정활동과 오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전 사전회의를 실시하여 의원별 관심 분야를 지정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면서 내실 있는 출장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가려고 했으나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홍콩의 분위기가 살벌하고 잦은 시위대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험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출장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했다.
- 먼저, 우리 일행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해서 푸트라자야라는 계획도시에 대해 탐방을 하기 시작했다.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의 행정 수도로서 성공적인 계획도시로 평가받는 도시이다. 넓은 도로가 도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도로 양 옆으로 정부청사가 들어서 있고, 이 주변은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었다.
- 처음에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시대가 엄청 뒤쳐져 있고,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이 도시를 접하고 무척이나 놀랐다. 웅장하고 멋있는 건축물과 우뚝 솟은 대형 빌딩들이 각각의 특색을 갖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었다.
- 특히 말레이시아 고유문화와 정신을 표현하는 현대적인 디자인 건물 외에도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건축 풍으로 건물들이 잘 정돈된 모습이었으며 더욱 괄목할만한 것은 도시면적의 약40% 를 녹지공간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 대규모 인공호수와 약 60만평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 이 도시는 관광객이 매년 220만 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말 그야말로 말레이시아 최고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었다.

-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인도, 말레이, 중국 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력한 법규제와 벌금으로 각종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었다.
비록, 강력한 규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잘 고려하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도시환경 정비 등 실용적인 정책 등으로 규제이상의 편의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 또, 싱가포르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인 속도가 아닌 장기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도로의 가로수들은 대부분이 30년 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도시개발계획 역시 40년전 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 ·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건물들을 신축할 때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고, 무주택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동하면서 둘러봐도 큰 건물 빌딩 외벽에 푸른 식물들로 가득 덮여 있는 건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 눈앞의 시야가 정화되는 기분과 함께 쾌적함은 덤으로 따라 왔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녹지공간을 몸소 접하고 보니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말 친환경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수 있었으며, 도심 전체가 깨끗하게 잘 정돈된 모습을 봤을 때는 부러움 마저 들었다.
- 6박 8일간의 이번 출장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통해 도시문화, 관광, 복지, 교통체계, 공원, 스마트시티 추진 등의 우수한 사례를 현지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한 정보지식은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배워서 차후 의정활동이나 오산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